휴켄스, 파워셀로 우유 품질 개선!

인섹트바이오텍과 독점판매 계약 체결 ... 바이오시장 드디어 입성

휴켄스(대표 이종석)가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인섹트바이오텍과 젖소 원유의 체세포 수 감소제 <파워셀>을 비롯한 보조사료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장에 진출한다.

원유 등급 및 젖소의 유방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<파워셀>을 국내 동물병원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.

<파워셀>은 고효율 단백질 분해효소 아라자임을 주원료로 제조한 체세포 수 감소제이며, 항염증 및 항균 작용 등으로 염증조직을 개선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고가의 항생제 투여나 화학요법제 등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내성과 잔류성에는 문제가 없다.

특히, 아라자임은 2002년 과학기술부의 국내 신기술인증(KT마크)을 취득한 바 있다.

휴켄스는 남해화학에서 기업분할된 후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인섹트바이오텍과 보조사료 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, 앞으로 아라자임을 이용한 양돈, 양계 비육증체용 및 육질개선용 등 다양한 보조사료도 시판할 계획이다.

기존의 정밀화학산업 분야와 더불어 바이오산업에 신규 진출함으로써 수익과 미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전략이다.

한편, 휴켄스는 2003년 1/4분기 매출액 605억원, 영업이익 37억원, 당기순이익 28억원을 기록했다.

전체 매출의 40%를 차지하는 DNT가 국내 주요 수요처 TDI(Toluene Di Isocyanate) 부분의 영업 호황에 힘입어 판매량이 10% 가량 늘어나면서 2002년 4/4분기에 비해 매출액이 50억원 가량 증가했다.

휴켄스는 현재 추세로 볼 때 매출액 2300억원, 당기순이익 100-120억원으로 설정한 2003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3/4분기 이후로는 한국BASF에 대한 희질산 장기공급도 개시되는 만큼 목표치에 연연하지 않고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6/03>